



Global Market Report 14-017

2014.06.10

일본기업의 최근 해외투자진출 동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I.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 | | |
|---|---------------------|
| 1 | 1.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
| 7 | 2.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요인 |
| 9 | 3. 일본정부의 해외투자 관련 정책 |

II.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 동향

- | | |
|----|--------------------------|
| 10 | 1. 해외기업 M&A의 최근 동향 |
| 15 | 2. 주요 M&A 사례 |
| 20 | 3. 2012년 이후 해외기업 M&A 리스트 |

III. 일본기업의 해외 자원확보형 투자진출

- | | |
|----|-----------------------------|
| 21 | 1. 자원확보형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
| 23 | 2. 주요 진출 사례 |
| 26 | 3. 2012년 이후 자원확보형 해외직접투자 사례 |

IV.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 | | |
|----|------------------------|
| 27 | 1. 생산거점 이전 최근 동향 |
| 29 | 2. 주요 진출 사례 |
| 30 | 3. 2012년 이후 생산거점 이전 사례 |

V. 시사점

- | | |
|----|------------|
| 30 | 우리에 대한 시사점 |
|----|------------|

※ 참고자료

요 약

□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4년 연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13년에는 전년 대비 39.6% 증가한 13조 3,497억 엔으로 대폭 증가 전망.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율이 3:7로 비제조업의 비율이 높음.
- 일본기업의 해외 매출은 2012년 98.3조 엔을 기록, 전년대비 11.4% 증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체의 45.6%를 차지하는 수송기계이고, 그 뒤로 정보통신기기(12.5%), 화학(9.4%) 순
- 최근 일본의 해외투자 진출 특징은 첫째, 일본기업의 M&A 건수 2년 연속 증가 둘째, 2013년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 기업 M&A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499건을 기록, 사상 최대였던 2012년(515건)에 육박 셋째, 중국기업 M&A 감소 추세, 동남아시아 지역의 M&A 활발 넷째, 2013년 후반부터 해외기업 M&A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임.
-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요인은 첫째 해외투자진출 지역의 제품 수요 확대, 둘째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본 내 노동인구 감소와 내수 시장 축소임. 엔저로 인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감소하거나 하는 영향은 없음.
- 해외투자 관련 정책과 관련 일본정부 차원의 ‘산업공동화’ 대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본 전체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 산업 구조 개혁은 진행 중

□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 동향

- 해외기업 M&A의 최근 동향은 2013년 2,048건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증가 추세. 이 중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는 전년대비 3.1% 감소한 499건을 기록, 사상 최대였던 2012년의 515건에 맞먹는 수준
 - ‘13년 전 세계 M&A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 감행.
- 엔화 약세로 인한 주가 상승에 힘입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M&A에 투자.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른 신흥국 진출도 M&A 확대에 기여

□ 일본기업의 해외 자원확보형 투자진출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해외 자원확보형 투자 진출이 늘고 있음.
- 최근 자원확보형 해외 투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주요 상사를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호주, 미얀마 등의 국가에 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이 집중되어 있음.
- 에너지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의 광물자원에 있어서도 차세대 자동차(EV, 수소자동차)나 항공기, 전기 전자 산업, 재생가능에너지, 철강, 화학 산업계의 관심이 높음.
- 한편 일본 정부는 ODA나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민간 기업과 해외기업(기관)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 지원하고 있음.
 - 제5회 아프리카 개발 회의(‘13.6)에서 “아베 이니셔티브” (장래 일본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리더 1,000명을 초청) 및 일본 중부전력과 한국의 KOGAS의 LNG공동조달(2013.1) 사례

□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 엔고가 크게 진행된 10년 이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최근까지 지속되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은 증가 추세
-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해외 법인 설립 증가가 뚜렷하며 ‘07년 이후 제조업과 차이가 점차 벌어짐. 비제조업의 해외법인 증가는 해외 시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현지 및 진출 주변국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요인
- 엔저에도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생산단가 저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 현지시장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 등 때문임.

□ 우리에 대한 시사점

- 엔고가 크게 진행된 10년 이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최근까지 지속되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은 증가 추세
- 일본기업은 인구 감소로 축소되고 있는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엔저에 따른 수익력 회복을 바탕으로 M&A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리스크 머니를 이용하는 등 공격적으로 M&A 시장에 참여
- 아울러 현지생산 [현지판매를 통해 마케팅 효율을 제고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른 신흥국 진출도 M & A 확대도 일본 기업이 계속 해외로 나가는 원인
- 일본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신규 분야 진출’, ‘전문 인재와 기술 획득’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M&A 추진과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Give and Take식 일본 정부의 對 신흥국 ODA 지원도 해외 진출 원인으로 평가
- 한편 국제 조달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바 (예: 일본 중부전력과 한국의 KOGAS의 LNG 공동조달(2013.1)의 공동조달 사례), 제 3국 진출 일본 기업에 대한 부품 소재 납품 등 국제 조달 수요에 대비해 한일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 관계 강화 필요

I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동향

1.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시기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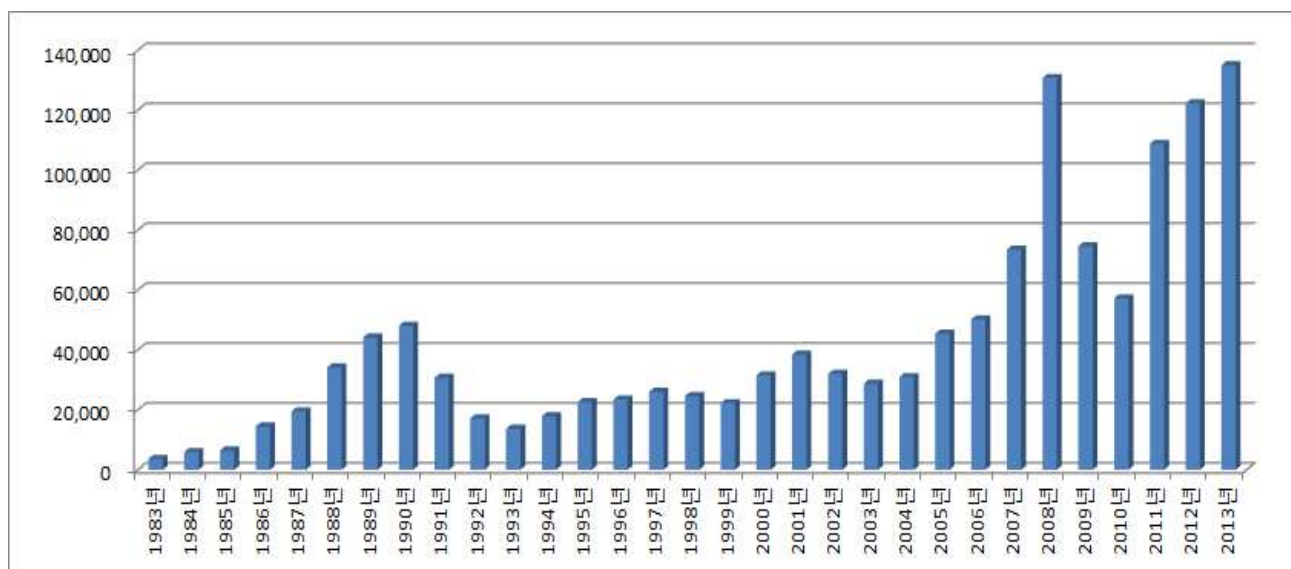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규모 면에서 증가. 선진국 대상 해외수출 증가로, 미국 및 유럽 간의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됨. 그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추세 유지, 1993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다시 확대. 특히 2004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크게 위축 현상¹⁾

□ 일본기업의 해외투자진출 2011년 이후 증가세 지속

- 2013년 대외직접투자 역대 최고치 기록
 - 2008년 1,308억 달러에 달했던 일본의 해외투자진출은 감소를 거듭하며 2010년 572억 달러 수준으로 위축됨
 - 하지만, 2011년부터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진출은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2013년에는 1,35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일본의 해외투자진출 추이(1983~2013) 》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JETRO

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전략과 한국의 대응'(2012.4) 재인용

《 일본의 최근 해외투자진출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시아	23,348	20,636	22,131	39,492	33,477	40,470
중국	6,496	6,899	7,252	12,649	13,479	9,104
아시아NIEs	5,842	5,907	6,902	9,302	8,043	8,955
Hong Kong	1,301	1,610	2,085	1,509	2,362	1,785
Taiwan	1,082	339	-113	862	119	330
R.Korea	2,369	1,077	1,085	2,439	3,996	3,296
Singapore	1,089	2,881	3,845	4,492	1,566	3,545
아세안4개국	4,043	3,540	4,310	13,204	6,397	16,587
Thailand	2,016	1,632	2,248	7,133	547	10,174
Indonesia	731	483	490	3,611	3,810	3,907
Malaysia	591	616	1,058	1,441	1,308	1,265
Philippines	705	809	514	1,019	731	1,242
베트남	1,098	563	748	1,859	2,570	3,266
인도	5,551	3,664	2,864	2,326	2,802	2,155
북미	46,046	10,889	9,016	15,166	35,768	46,505
U.S.A.	44,674	10,660	9,193	14,730	31,974	43,703
Canada	1,372	229	-177	436	3,796	2,800
중남미	29,623	17,393	5,346	11,287	10,454	10,197
Mexico	315	211	688	264	1,023	1,750
Brazil	5,371	3,753	4,316	8,290	4,113	4,037
대양주	6,060	7,629	6,407	8,767	11,075	6,098
Australia	5,232	7,136	6,371	8,149	10,890	5,835
유럽	23,068	17,830	15,043	39,841	31,017	32,227
서유럽	22,418	17,073	14,450	39,213	29,690	31,905
Germany	3,905	2,089	-321	2,165	1,797	2,653
U.K.	6,744	2,126	4,624	14,125	11,882	13,319
France	1,703	1,161	551	116	2,291	-237
Netherlands	6,514	6,698	3,288	5,346	8,638	8,636
Italy	177	110	372	1,007	141	419
Belgium	2,196	423	-166	-168	495	2,681
러동구	650	757	593	628	1,326	322
Russia	306	391	350	339	757	447
중동	1,138	575	-348	716	447	91
아프리카	1,518	-301	-372	464	116	-537
전세계	130,801	74,650	57,223	108,808	122,355	135,049
(증감율)	(78.0)	(-42.9)	(-23.3)	(90.1)	(12.5)	(10.4)
ASEAN	6,309	7,002	8,930	19,645	10,675	23,619
EU	22,939	17,039	8,359	36,052	29,023	30,999

자료원 : JETRO

- 제조업 보다는 비제조업이 크게 우세
 - 2013년도 업종별 대외직접투자에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율이 3:7로 비제조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기계기구(8.7%), 화학·의약(4.3%), 전기기계기구(3.4%), 일반기계기구(2.9%)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제조업 투자는 2012년 대비 13.8% 감소했고, 목재펄프, 정밀기계기구, 섬유, 철·비철금속, 전기기계기구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높았음

《 업종별 대외직접투자 》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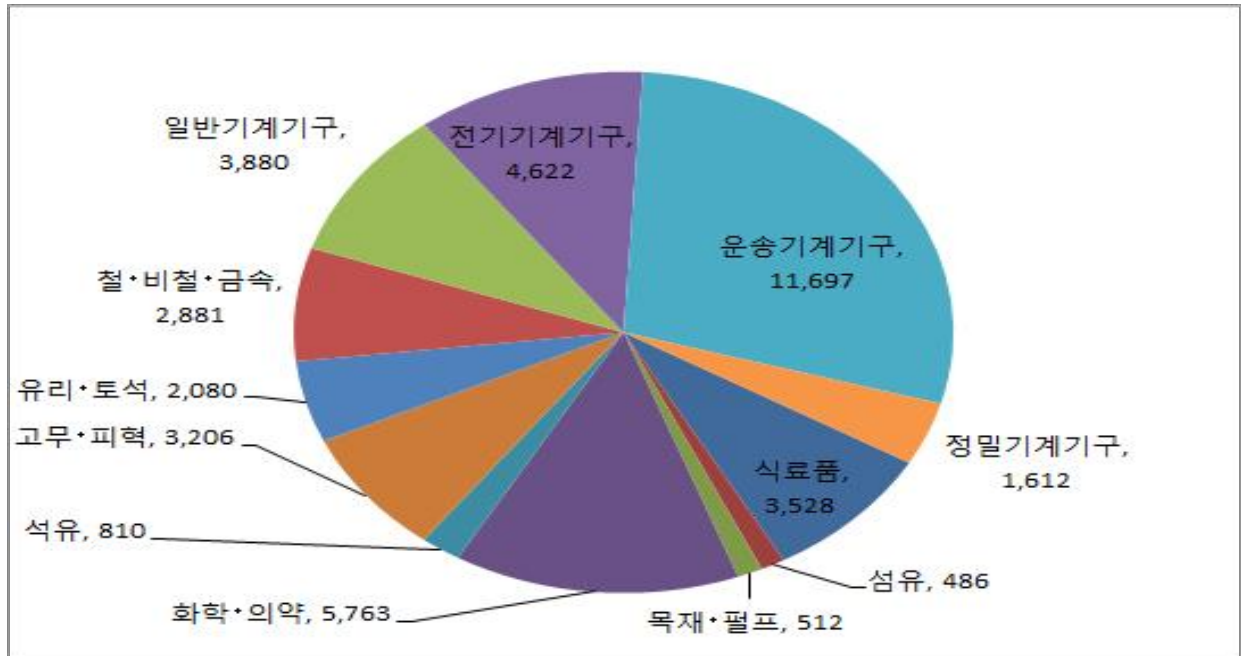
업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업종별 구성비/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제조업		32,934	17,803	57,952	49,250	42,473	31.5	△ 13.8
	식료품	8,954	2,017	8,149	2,364	3,528	2.6	49.2
	섬유	477	377	672	927	486	0.4	△ 47.5
	목재·펄프	1,207	1,068	1,268	1,166	512	0.4	△ 56.1
	화학·의약	7,407	7,902	19,618	6,494	5,763	4.3	△ 11.3
	석유	△ 51	△ 837	216	491	810	0.6	64.8
	고무·피혁	445	634	715	1,853	3,206	2.4	73.0
	유리·토석	2,042	377	1,325	1,922	2,080	1.5	8.2
	철·비철·금속	3,738	3,873	5,017	4,206	2,881	2.1	△ 31.5
	일반기계기구	4,411	4,385	5,655	7,979	3,880	2.9	△ 51.4
	전기기계기구	2,505	1,361	7,334	6,707	4,622	3.4	△ 31.1
	수송기계기구	566	△ 3,582	4,132	10,465	11,697	8.7	11.8
	정밀기계기구	609	51	2,791	3,219	1,612	1.2	△ 49.9
비제조업		41,717	39,420	57,780	73,102	92,577	68.6	26.6
	농림업	10	145	250	101	124	0.1	23.5
	어업·수산업	36	47	△ 7	40	8	0.0	△ 79.7
	광업	6,482	9,061	16,477	20,934	13,089	9.7	△ 37.5
	건설업	499	302	436	870	596	0.4	△ 31.9
	운수업	2,894	2,294	1,606	870	1,532	1.1	76.2
	통신업	3,870	9,899	△ 1,799	7,208	23,416	17.3	224.9
	도·소매업	8,418	1,946	12,407	18,372	12,923	9.6	△ 29.7
	금융·보험업	15,463	11,397	19,111	14,210	26,701	19.8	87.9
	불동산업	463	765	2,447	2,469	3,118	2.3	26.3
	서비스업	2,163	1,596	4,022	4,350	7,480	5.5	71.9
합 계		74,650	57,223	115,732	122,352	135,049	100.0	10.4

주 : 엔화기준 발표 수치를 일본은행 인터뱅크 기준 평균 환율로 환산

자료원 : JETRO, 도쿄무역관

《 일본 제조업 업종별 대외직접투자(2013年) 》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 JETRO, 도쿄무역관

□ 일본기업들의 업종별 해외매출액 및 해외생산비율 추이

- 2012년 해외현지법인 매출액은 98.3조 엔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
 -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는 수송기계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으며, 정보통신기기(12.5%), 화학(9.4%), 기타 제조업 순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석유·석탄으로 88.4% 증가
 - 대상지역별 매출비중은 대일본 역수출이 11.5%, 현지판매 58.9%, 제3국 수출이 29.6%를 차지
- 일본으로의 역수출은 정보통신, 기계류의 비율 높아
 - 수송기계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 매출 비중이 45.6%인 반면, 대일본 수출 비중은 16.7%로 큰 격차를 보였음
 - 정보통신기기는 해외 현지법인 매출 비중은 12.5%였으나, 대일본 수출 비중은 33.1%로 반대의 매출 구조를 보임
 - 또한, 정보통신기기는 현지법인 매출이 전년대비 20.5% 증가, 일본 수출이 증가하면서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 3국 수출로는 수송기계가 증가 추세
 - 수송기계의 경우, 대일본 수출과 현지판매 비중도 높아지는 가운데 제3국 수출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 현지 생산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매출액 내역(2012年) 》

(단위 : 백만엔)

구 분	매출액	대일 수출액			현지 판매액	현지 판매액		
		수출액	자회사	기타 기업		일본계 기업	현지 기업	기타 기업
제조업	98,384,657	11,350,790	10,474,729	876,061	57,959,571	25,039,599	29,952,086	2,967,886
식료품	2,862,983	340,890	306,842	34,048	2,057,309	150,152	1,902,926	4,231
섬유	1,138,015	330,085	266,676	63,409	538,962	208,881	316,002	14,079
목재, 펄프	574,435	131,046	114,482	16,564	221,471	70,724	125,407	25,340
화학	9,265,898	593,027	522,591	70,436	6,482,297	1,793,508	3,898,036	790,753
석유口석탄	2,071,068	74,158	74,158	-	838,023	567,681	270,147	195
요업口토석	1,595,690	122,370	117,085	5,285	802,829	139,477	589,515	73,837
철강	2,104,524	40,619	35,421	5,198	1,889,758	767,196	958,105	164,457
비철금속	1,984,372	387,045	223,751	163,294	1,256,350	511,796	683,443	61,111
금속제품	987,024	193,743	173,097	20,646	604,927	315,767	270,069	19,091
범용기계	2,043,366	194,290	186,202	8,088	1,261,099	308,760	885,602	66,737
생산용기계	2,833,500	264,360	246,401	17,959	1,875,839	477,820	1,311,634	86,385
업무용기계	2,933,359	1,105,820	1,003,608	102,212	977,382	189,735	776,260	11,387
전기기계	4,690,622	845,820	764,282	81,538	2,644,237	659,962	1,693,561	290,714
정보통신기계	12,271,864	3,958,056	3,782,030	176,026	5,876,665	1,710,247	3,883,375	283,043
수송기계	44,832,652	2,004,287	1,932,246	72,041	27,020,023	15,872,466	10,175,617	971,940
기타 제조업	6,195,285	765,174	725,857	39,317	3,612,400	1,295,427	2,212,387	104,586
비제조업	100,649,762	8,179,644	6,738,340	1,441,304	61,712,037	9,449,538	47,147,876	5,114,623
농림어업	169,800	64,376	61,916	2,460	72,690	28,244	42,265	2,181
광업	2,467,649	867,865	772,538	95,327	831,877	54,046	762,191	15,640
건설업	1,462,597	31,062	30,428	634	1,388,723	773,664	597,867	17,192
정보통신업	2,308,107	250,057	229,778	20,279	1,537,375	184,349	1,319,891	33,135
운송업	2,852,838	483,429	343,328	140,101	1,690,513	671,278	307,897	711,338
도매업	72,421,076	4,994,216	4,069,287	924,929	42,834,925	5,702,787	35,089,944	2,042,194
소매업	6,372,995	40,057	38,489	1,568	5,771,920	960,769	3,829,820	981,331
서비스업	5,489,720	913,108	890,702	22,406	3,748,219	784,709	2,575,046	388,464
기타 비제조업	7,104,980	535,474	301,874	233,600	3,835,795	289,692	2,622,955	923,148

자료원: 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속보)’

《 일본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매출액 내역(2011年) 》

(단위: 백만엔)

구 분	매출액	대일 수출액			현지판매 액			
			자회사	기타 기업		일본계 기업	현지 기업	기타 기업
제 조 업	88,289,996	9,928,342	9,036,874	891,468	55,311,744	22,207,777	30,942,367	2,161,600
식료품	2,642,066	331,629	296,984	34,645	1,878,333	125,175	1,748,341	4,817
섬유	894,230	219,512	172,302	47,210	440,161	142,687	288,887	8,587
목재, 펄프	574,701	140,975	116,041	24,934	233,606	57,972	158,791	16,843
화학	8,806,235	564,518	500,128	64,390	6,188,611	1,371,762	4,523,074	293,775
석유口석탄	1,099,292	29,949	29,949	-	588,245	325,629	258,162	4,454
요업口토석	1,155,832	123,544	120,918	2,626	609,450	105,127	470,426	33,897
철강	2,052,359	54,063	37,243	16,820	1,840,069	712,520	979,494	148,055
비철금속	2,046,073	409,674	241,903	167,771	1,229,472	476,206	631,799	121,467
금속제품	764,016	145,124	123,802	21,322	511,600	219,923	275,550	16,127
범용기계	1,877,517	312,533	298,141	14,392	1,022,738	207,547	755,042	60,149
생산용기계	2,787,227	248,073	232,036	16,037	1,923,772	665,443	1,209,750	48,579
업무용기계	2,361,707	776,437	736,490	39,947	903,339	123,712	764,623	15,004
전기기계	4,340,848	902,980	882,510	20,470	2,386,913	738,938	1,279,978	367,997
정보통신기계	12,000,919	3,285,477	2,980,791	304,686	6,110,096	1,922,447	3,916,982	270,667
수송기계	39,020,397	1,661,815	1,588,219	73,596	25,457,403	13,992,061	10,788,268	677,074
기타 제 조 업	5,866,577	722,039	679,417	42,622	3,987,936	1,020,628	2,893,200	74,108
비 제 조 업	93,952,118	7,443,462	6,446,755	996,707	56,959,222	8,232,550	44,413,333	4,313,339
농림어업	152,517	51,634	50,193	1,441	65,811	27,347	36,369	2,095
광업	2,807,730	1,100,360	961,511	138,849	907,308	170	843,801	63,337
건설업	962,676	11,585	11,228	357	918,280	474,263	429,304	14,713
정보통신업	2,015,200	159,125	146,558	12,567	1,291,617	169,169	1,110,802	11,646
운송업	2,084,453	293,228	205,864	87,364	1,245,720	538,310	198,833	508,577
도매업	68,035,352	4,676,728	4,085,530	591,198	40,261,106	5,761,539	33,030,138	1,469,429
소매업	5,544,575	40,739	39,860	879	4,685,338	321,792	3,493,765	869,781
서비스업	4,898,034	793,672	761,758	31,914	3,229,760	794,899	2,101,168	333,693
기타 비제조업	7,451,581	316,391	184,253	132,138	4,354,282	145,061	3,169,153	1,040,068

자료원: 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속보)'

《 일본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매출액 내역(2011-12年) 》

(단위: 백만 엔)

구 분	매출액					대 일 수출액				
	2011		2012		증감률	2011		2012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82,242,114	100	199,034,419	100	0.1	17,371,804	100	19,530,434	100	0.1
제 조 업	88,289,996	48.4	98,384,657	49.4	0.1	9,928,342	57.2	11,350,790	58.1	0.1
식료품	2,642,066	1.4	2,862,983	1.4	0.1	331,629	1.9	340,890	1.7	0.0
섬유	894,230	0.4	1,138,015	0.6	0.3	219,512	1.3	330,085	1.7	0.5
목재, 펄프	574,701	0.3	574,435	0.3	0.0	140,975	0.8	131,046	0.7	△0.1
화학	8,806,235	4.8	9,265,898	4.7	0.1	564,518	3.2	593,027	3.0	0.1
석유·석탄	1,099,292	0.6	2,071,068	1.0	0.9	29,949	0.2	74,158	0.4	1.5
요업·토석	1,155,832	0.6	1,595,690	0.8	0.4	123,544	0.7	122,370	0.6	0.0
철강	2,052,359	1.1	2,104,524	1.1	0.0	54,063	0.3	40,619	0.2	△0.2
비철금속	2,046,073	1.1	1,984,372	0.9	0.0	409,674	2.4	387,045	2.0	△0.1
금속제품	764,016	0.4	987,024	0.5	0.3	145,124	0.8	193,743	1.0	0.3
범용기계	1,877,517	1.0	2,043,366	1.0	0.1	312,533	1.8	194,290	1.0	△0.4
생산용기계	2,787,227	1.5	2,833,500	1.4	0.0	248,073	1.4	264,360	1.4	0.1
업무용기계	2,361,707	1.2	2,933,359	1.5	0.2	776,437	4.5	1,105,820	5.7	0.4
전기기계	4,340,848	2.4	4,690,622	2.4	0.1	902,980	5.2	845,820	4.3	△0.1
정보통신기계	12,000,919	6.6	12,271,864	6.2	0.0	3,285,477	18.9	3,958,056	20.3	0.2
수송기계	39,020,397	21.4	44,832,652	22.5	0.1	1,661,815	9.6	2,004,287	10.3	0.2
기타 제조업	5,866,577	3.2	6,195,285	3.1	0.1	722,039	4.2	765,174	3.9	0.1
비제 조 업	93,952,118	51.6	100,649,762	50.6	0.1	7,443,462	42.8	8,179,644	41.9	0.1
농림어업	152,517	0.1	169,800	0.1	0.1	51,634	0.3	64,376	0.3	0.2
광업	2,807,730	1.5	2,467,649	1.2	△0.1	1,100,360	6.3	867,865	4.4	△0.3
건설업	962,676	0.5	1,462,597	0.7	0.3	11,585	0.1	31,062	0.2	0.6
정보통신업	2,015,200	1.1	2,308,107	1.2	0.1	159,125	0.9	250,057	1.3	0.4
운송업	2,084,453	1.1	2,852,838	1.4	0.3	293,228	1.7	483,429	2.5	0.4
도매업	68,035,352	37.3	72,421,076	36.4	0.1	4,676,728	26.9	4,994,216	25.6	0.1
소매업	5,544,575	3.0	6,372,995	3.2	0.1	40,739	0.2	40,057	0.2	0.0
서비스업	4,898,034	2.7	5,489,720	2.8	0.1	793,672	4.6	913,108	4.7	0.1
기타 비제조업	7,451,581	4.1	7,104,980	3.6	0	316,391	1.8	535,474	2.7	0.4

자료원: 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속보)’

구분	현지 판매액				
	2011		2012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12,270,966	100	119,671,608	100	0.1
제조업	55,311,744	49.3	57,959,571	48.4	0.0
식료품	1,878,333	1.7	2,057,309	1.7	0.1
섬유	440,161	0.4	538,962	0.5	0.2
목재, 펄프	233,606	0.2	221,471	0.2	△0.1
화학	6,188,611	5.5	6,482,297	5.4	0.0
석유·석탄	588,245	0.5	838,023	0.7	0.4
요업·토석	609,450	0.5	802,829	0.7	0.3
철강	1,840,069	1.6	1,889,758	1.6	0.0
비철금속	1,229,472	1.1	1,256,350	1.0	0.0
금속제품	511,600	0.5	604,927	0.5	0.2
범용기계	1,022,738	0.9	1,261,099	1.1	0.2
생산용기계	1,923,772	1.7	1,875,839	1.6	0.0
업무용기계	903,339	0.8	977,382	0.8	0.1
전기기계	2,386,913	2.1	2,644,237	2.2	0.1
정보통신기계	6,110,096	5.4	5,876,665	4.9	0.0
수송기계	25,457,403	22.7	27,020,023	22.6	0.1
기타 제조업	3,987,936	3.6	3,612,400	3.0	△0.1
비제조업	56,959,222	50.7	61,712,037	51.6	0.1
농림어업	65,811	0.1	72,690	0.1	0.1
광업	907,308	0.8	831,877	0.7	△0.1
건설업	918,280	0.8	1,388,723	1.2	0.3
정보통신업	1,291,617	1.2	1,537,375	1.3	0.2
운송업	1,245,720	1.1	1,690,513	1.4	0.3
도매업	40,261,106	35.9	42,834,925	35.8	0.1
소매업	4,685,338	4.2	5,771,920	4.8	0.2
서비스업	3,229,760	2.9	3,748,219	3.1	0.1
기타 비제조업	4,354,282	3.9	3,835,795	3.2	△0.1

자료원: 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속보)’

2.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요인

□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진출 요인

- 해외투자진출지역의 제품수요 확대가 가장 주요한 요인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 2012년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에 의하면, 투자 결정의 포인트는(복수응답 가능) ‘ 현지 제품수요가 왕성 또는 향후 수요가 예상된다.’ 가 66.7%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 관련 네트워크를 포함, 다른 일본계 기업의 진출실적이 있다’ (35.6%), ‘ 진출지역 인근국가에서 제품수요가 왕성 또는 향후 확대가 예상된다’ (27.4%), ‘ 고품질의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21.4%) 순
- ‘ 값싼 노동력’ 에 의한 투자결정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 관련 네트워크를 포함, 다른 일본계 기업의 진출실적이 있다’ 라는 답변비율이 지속 늘고 있으며, ‘ 진출지역 인근국가에서 제품수요가 왕성 또는 향후 확대가 예상 된다’ 는 답변도 5년 연속 증가
 - 반면, 투자결정 포인트로 ‘ 고품질의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는 항목을 응답하는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해외진출 증가 추세 지속될 듯
 - 향후 일본 내 ‘ 노동인구 감소’ 와 ‘ 내수시장 축소’ 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신흥국 중심 진출과 그 인근의 제 3국까지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엿보임

《 총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

(단위 : %)

구 분	2005	'10	'15	'20	'25	'30	'35
일본	65.8	63.3	60.8	59.2	58.7	58.1	56.6
동남아	65.0	66.3	67.5	67.9	68.1	67.8	67.1

자료: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자료('14.1.29) (UN Population Division 2013)로 재인용

- 또한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에 간접적으로 일조하는 것이 TPP, RCEP 등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FTA라고 할 수 있음

- 내수부진 장기화로 성장잠재력 높은 신흥국으로 진출 가속
 - 특히 아시아 소재 일본계 제조업체들은 역내 조달·판매를 확대하는 등 현지화 경향이 뚜렷함

《 아시아 소재 일본계 제조업체의 조달 및 판매비중 》

(단위 : %)

구 분	조달			판매		
	역내	일본	역외	역내	일본	역외
1990	55.3	40.3	4.4	73.6	11.2	15.2
2002	64.7	33.0	2.3	66.8	23.5	9.7
2011	71.2	26.9	1.9	76.0	18.1	5.9

자료원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자료('14.1.29) (경제산업성)로 재인용

- 6중고(6重苦)는 엔고문제 이외 큰 변화 없어
 - 6중고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일본기업이 겪던 6중고 중 개선된 것은 엔고(円高) 문제 정도
 - 그러나 엔저가 일본기업의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

《 일본 산업의 6중고 현황 》

항목	내용	현황	평가
엔고	엔고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	엔저 현상 지속	○
높은 법인세	법인세 실효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실효세율 인하에 대한 협의 개시	△
FTA 지연	FTA 지연에 의한 일본 입지 불리	TPP 교섭에 참가중이나, 교섭 난항	△
높은 전력가격	원자력발전 정지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	×
엄격한 노동규제	제조업 파견금지 포함, 경직된 노동시장	노동규제에 큰 개선 없음	×
엄격한 환경규제	2020년까지 CO ₂ 감축 목표	환경규제 큰 변화 없음	×

주) ○ : 개선 △ : 대응 중 × :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음

자료원 : 미즈호 총연

3. 일본정부의 해외투자관련 정책

-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 정부차원의 ‘산업공동화’ 대책을 주목적으로 한 정책은 없음.
 - 다만, 일본 전체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설비 등 투자촉진 사업비 보조금’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있음
 - 일본정부는 산업공동화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
 -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기조 유지도 결국은 산업공동화 저지를 위한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
 - 일본 산업구조 개혁 진행 중
 - 법인세 인하(2015년 실시 목표), ‘FTA 체결(TPP, 일본-EU, 한중일 FTA 등) 노력’, ‘노동시장 규제 완화’ (건설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용 결정) 등 일본 내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정책
- 일본정부의 해외투자진출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 중소기업 해외진출 현지지원 플랫폼 구축²⁾
 - 현지 대사관, JETRO, JICA, 일본 상공회의소, 법률·회계 사무소, 컨설턴트 등을 네트워크화,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 중국, ASEAN 등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부터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는 충칭, 청두, 첸나이, 뭄바이, 자카르타, 방콕, 마닐라, 호치민, 하노이, 양곤, 상파울로 등 총 8개국 10개소 운영 중
 - JAIC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 펀드 운용
 - JAIC³⁾ 출자금 총액 20억 엔을 투자해서 펀드 조성
 - 투자 대상은 해외사업 확대 및 성장단계에 있는 비상장 기업
 - 지원 건당 5천만 ~2억 엔을 목표로 출자했으며, 기본적으로는 아시아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이외 지역 진출기업도 가능

2) <http://www.jetro.go.jp/services/platform/> 10개 제트로 해외사무소가 코디네이터 역할

3) Japan Asia Investment Co.,Ltd.

II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 동향

1. 해외기업 M&A의 최근 동향

- ‘ 13년 전체 M&A 건수는 10.8% 증가한 반면, 금액은 29.3% 감소
 - 일본기업의 ‘ 13년 M&A 건수는 2,048건으로 전년 1,848건 보다 10.8%(200건)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시현
 - M&A 건수가 2,000건을 상회한 것은 2008년 이후 5년래 처음
 - 일본기업간 M&A(In-In)는 1,400건, 해외기업의 일본기업 인수합병 (Out-In)가 149건을 기록해 각각 14.7%, 33.0% 증가
 -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In-Out)은 499건으로 3.1% 감소했으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의 515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준
 - 금액은 5조 1,727억 엔으로 2012년(7조 6,216억 엔) 대비 32.1% 감소

《 일본기업 국내외 M&A 추이 》

(단위 : 백만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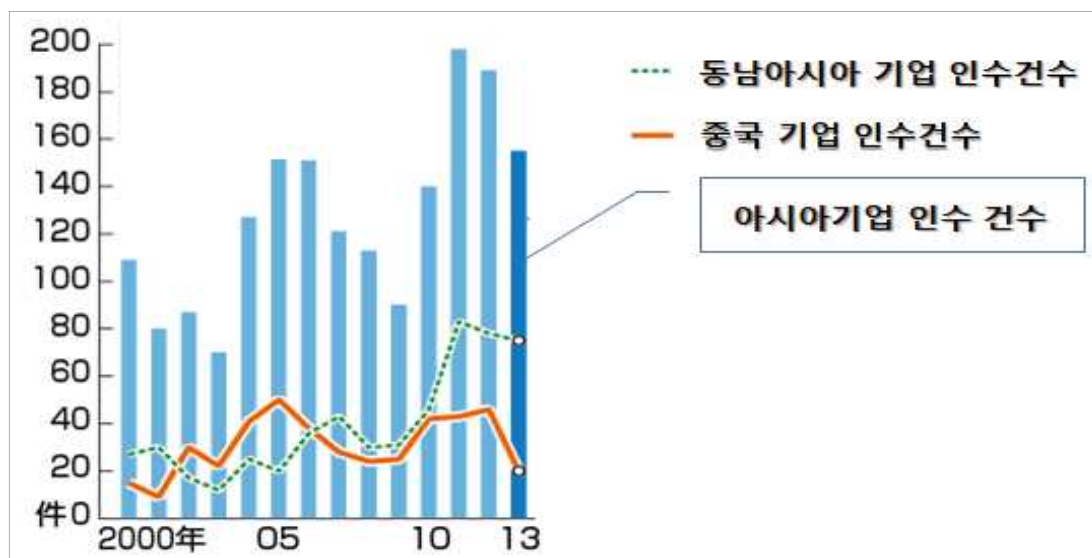
구분	IN-IN		IN-OUT		OUT-IN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1,520 (△16.7%)	4,385,584 (△5.5%)	299 (△20.7%)	2,895,984 (△61.4%)	138 (△30.3%)	699,068 (49.0%)	1,957 (△18.4%)	7,980,636 (△36.7%)
2010년	1,194 (△21.4%)	2,475,070 (△43.6%)	371 (24.1%)	3,860,847 (33.3%)	142 (2.9%)	433,796 (△37.9%)	1,707 (△12.8%)	6,769,713 (△15.2%)
2011년	1,086 (△9.0%)	3,490,212 (41.0%)	455 (22.6%)	6,413,082 (66.1%)	146 (2.8%)	1,000,884 (130.7%)	1,687 (△1.2%)	10,904,178 (61.1%)
2012년	1,221 (12.4%)	3,773,624 (8.1%)	515 (13.2%)	7,621,681 (18.8%)	112 (△23.3%)	567,781 (△43.3%)	1,848 (9.5%)	11,963,086 (9.7%)
2013년	1,400 (14.7%)	1,687,968 (△55.3%)	499 (△3.1%)	5,172,780 (△32.1%)	149 (33.0%)	1,598,977 (181.6%)	2,048 (10.8%)	8,459,725 (△29.3%)

자료원: RECOF

- 일본 기업들의 **M&A** 건수 증가는 수익성 회복에 따른 결과
 - ‘13년 전 세계 M&A가 3만 5,000건으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 기업들의 M&A 바람이 두드러진 것은 수익성 회복에 따른 결과
 - 일본 기업들이 최근 거래가 활발해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M&A를 비롯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

- **M&A** 대상지역은 동남아에 집중
 - In-Out 499건 중 아시아 202건, 북미 133건, 유럽 116건, 기타지역 48건
 - 아시아지역 기업 M&A는 2011년의 198건을 상회, 사상최고치를 경신
 - 미국을 제외한 상위 국가는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
 - 국가별로는 미국 123건, 중국/태국/한국 각 30건, 인도 22건, 베트남 20건, 대만 19건 순.
 - 중국에 대한 M&A 활동은 중일관계 악화로 인해 전년대비 약 50% 감소한 반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증. 對동남아 M&A 건수는 전년대비 99건(27%), 금액은 9,543억 엔(4배 증가)

《 일본기업의 중국 · 동남아시아 M&A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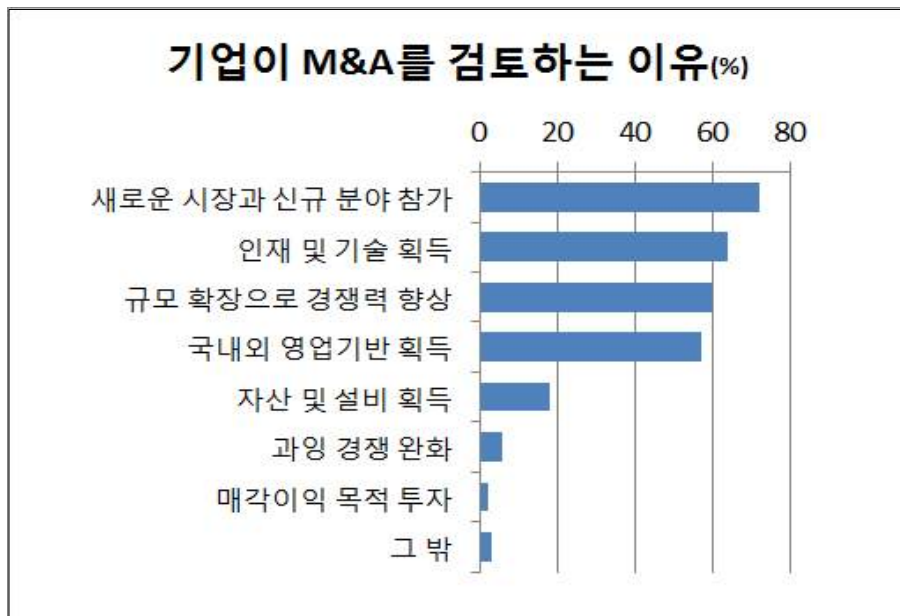


자료원 : RECOF 조사. '13년은 1~10월 누계 기준

- 2013년 후반부터 해외기업 M&A 관련 움직임 활발
 - 미츠비시 도쿄 UFJ 은행의 태국 아유타야 은행 M&A 등 7월 이후 M&A 금액이 1,000억 엔을 넘는 대형 이슈가 나왔음
 - 실제로 도시바와 히타치 등 주요 전기전자 제조사와 도레이 등 소재 대기업 등은 결산 및 중기경영계획 발표 시 적극적 M&A 방침을 밝혔음

□ 기업이 M&A를 검토하는 이유

- M&A에 적극적인 일본 기업 증가 추세
 - 일본경제신문('14.3.23)가 실시한 기업체 경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 M&A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고 대답한 경영자가 46.6%에 달했음



- 이유로는 '새로운 시장과 신규분야 진출' , '인재와 기술 획득' 등으로 적극적인 M&A 추진 의사를 표명한 기업이 1년 전 조사에 비해 4%포인트 증가
- 또한, 일본의 경제회복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보유자금이 풍부해진 기업이 증가한 것도 작용함

- 선진국 시장에서의 M&A에 대한 관심 높아
 - M&A 대상 기업의 국가 및 지역(복수응답)에 대한 답변에서는 구미 선진국이 60.9%로 가장 많았고, 중국 등 신흥국도 52.2%를 기록
 - 일본 기업에 의한 향후 M&A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증가” (다이와 증권 관계자)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임
- 일본 중견기업도 진출
 - 일본기업의 아시아지역 M&A가 더욱 활발해짐. 2013년도 M&A 건수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과거 최고치 기록
 - 주가 상승이나 수익성 회복을 배경으로 성장시장을 진출하는 움직임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사이에서도 확대
 - 자본시장에서 리스크 머니를 조달받아 M&A 등 공격적인 투자로 사용하는 움직임도 선명

□ 분석 및 전망

- 일본의 인구 감소세로 내수시장의 중장기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 일본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
 - 마키노 주니치 SMBC닛코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본 기업들의 M&A 목표는 성장세에 있는 아시아시장의 문을 두드리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언급
 - 니혼게이자이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가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인수비용에 부담을 줬지만 주가 상승세 덕분에 일본기업의 M&A 의지가 강하다고 분석
- ※ 도쿄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 225지수는 지난 1년간 20% 이상 상승
- 일본기업들이 차입이나 보유자금 등 전통적인 수단보다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M&A에 나서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일본기업이 2013 회계연도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2조 5,300억 엔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3조 8,600억 엔) 이후 최대가 될 전망

- 일본 산토리홀딩스는 지난해 도쿄증시에 데뷔하면서 끌어 모은 자금으로 미국 위스키업체 빔을 160억 달러에 인수
-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른 신흥국진출도 M&A 확대에 기여
 - 일본 글로벌기업들은 동남아 각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현지생산/현지판매를 통해 마케팅 효율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현지생산거점 설립 + M&A를 통한 현지진출)
 - 최근 엔화가치의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A가 급증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중장기 전략에 기인
- 시장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M&A 등 공격적인 투자에 쏟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져 시장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

2. 주요 M&A 사례

인수기업	글로리(일본)	피인수기업	탈라리스 톱코 (영국)
분야	정밀	규모(금액, 억엔)	858
◦ 글로리는 화폐처리기 판매 등을 다루는 영국 탈라리스사를 인수한다고 발표(' 12.2월) - 인수 총액은 약 800억 엔으로, 글로리는 수백억 엔대의 대형 M&A는 이번이 처음 ◦ 탈라리스가 보유한 글로벌 판매망 및 A/S망을 이용하여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인수의 목적 - 탈라리스는 세계 22개국에 직판, 직접 관리망을 보유 - 오노에 히로카즈 사장은 “ 화폐처리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은행창구용 지폐입출금시스템의 판매로 해외사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 ◦ 인수 이전 TCR(은행 창구용 지폐입출금시스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탈라리스가 41%, 글로리가 18% - 업계 일부에서는 반독점법 저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화폐처리기 영역에서 보면 TCR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 양사의 경영 자원을 활용하여 금융 기관 이외에도 유통업 등의 신규 고객 개척 추진			
□ 인수기업 개요 ◦ 설립 : 1964.8월 ◦ 매출액('12년) : 9,638억 엔 ◦ 종업원수 : 5,652명 ◦ 주요사업 : 화폐처리기 개발· 제조· 판매· 유지 보수 □ 피인수기업 개요 ◦ 설립 : 2008.9월 ◦ 매출액('11년) : 546억 엔 ◦ 종업원수 : 1,900명 ◦ 주요사업 : 창구용지폐입출금기, 지폐분류계수기, ATM 제조 및 판매			

인수기업	다이킨공업(일본)	피인수기업	굿맨(미국)
분야	전기·기계	규모(금액, 억엔)	2,960
◦ 일본 최대 공조기 업체 다이킨공업이 미국 가정용 에어컨 업체 굿맨글로벌을 37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에 인수('12.8월) - 엔고에 힘입어 일본 기업들이 잇달아 해외업체 인수전에 나선 가운데 올해 일본 제조업체가 추진한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 - 중국 경쟁사에 코밑까지 추격을 당한 다이킨은 이로써 세계 공조기 시장 선두자리를 굳힌다는 전략 - 미국 사모펀드인 헬만앤드프리드먼이 보유한 굿맨 주식을 전량 인수하는 방식 ◦ 다이킨은 지난 2010년 미국 캐리어를 제치고 세계 공조기 시장 1위로 등극 - 당시 굿맨 인수를 추진했으나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내수 경기가 불안해지자 잠정 중단 - 이후 중국 공조기업체들이 해외 업체 인수를 통해 규모를 키우면서 급속히 성장하자 선두 자리에 위협을 느낀 다이킨이 굿맨 인수에 다시 나선 것으로 풀이됨 - 인수가가 당시 3,500억 엔에서 3,000억 엔 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영향 ◦ 다이킨은 굿맨 인수를 발판으로 미국 가정용 에어컨 시장 진출을 강화 - 다이킨은 그동안 북미시장에서 업무용 대형 공조 시장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가정용 시장에서는 문화의 차이 등의 벽에 부딪힘 ※ 방마다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설치하는 일본과 달리 북미와 중남미는 가정용 에어컨도 공기 배관을 건물 전체에 연결해 내보내는 '덕트 방식'을 적용 -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굿맨을 통해 미국과 중남미 시장도 개척할 방침			
□ 인수기업 개요 ◦ 설립 : 1934.2월 ◦ 매출액('13년) : 12,909억 엔 ◦ 종업원수 : 6,668명 ◦ 주요사업 : 주택용 공조기 주거 공기 청정기 업무용 공조기, 업무용 공기 청정기, 대형 냉동기, 해상 컨테이너 냉동 장비, 선박용 냉동 공조기 □ 피인수기업 개요 ◦ 설립 : 1982년 ◦ 매출액('13년) : 1,600억 엔 ◦ 종업원수 : 49,000명 ◦ 주요사업 : 가정용 에어컨 제조 및 판매			

인수기업	소프트뱅크 경호 온라인엔터테인먼트(일본)	피인수기업	슈퍼셀(핀란드)
분야	통신·방송	규모(금액, 억엔)	1,547
- 소프트뱅크의 계열사인 경호온라인이 핀란드의 슈퍼셀을 인수('13.10월) - 소프트뱅크가 80%, 경호가 20%를 투자하여 특별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슈퍼셀에 1,500억 엔을 투자하여 51%의 주식을 취득 - 이번 인수로 인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경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사와 슈퍼셀사가 게임 개발기술을 공유 - 금번 인수는 업계 강자간 통합으로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 다대 - 슈퍼셀사는 2013년 상반기 iOS 기반게임 중 세계 최고매출을 기록했으며, 2013년 전체 매출액은 2012년의 100억 엔을 크게 상회하는 800억 엔을 상회 - 경호의 스마트폰 게임 '퍼즐 앤 드래곤'도 총 다운로드가 1,900만회를 넘은 세계적인 히트작으로서, 2013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5배(746억 엔), 영업이익은 44.3배(51억 엔)를 기록 - 소프트뱅크는 '13.3월에도 자회사인 소프트뱅크 모바일주식회사를 통해 경호온라인 주식을 전량 매수, 소프트뱅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킨 바 있음 - 경호온라인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동생 손태장 씨가 창업한 회사로, 소프트뱅크의 독립 관계사였으나 당시 인수를 통해 소프트뱅크 그룹의 완전 자회사가 됨			
□ 인수기업 개요 - 설립 : 1981.3월 ◦ 매출액('13년) : 2,387억 엔 ◦ 종업원수 : 24,598명 - 주요사업 : 모바일 게임 개발/판매 □ 피인수기업 개요 - 설립 : 1975.3월 ◦ 매출액('13년) : N/A ◦ 종업원수 : N/A - 주요사업 : 모바일 게임 개발/판매			

인수기업	신일철주금(일본) 아르셀로미탈(룩셈부르크)	피인수기업	티센크루프(독일)
분야	철강	규모(금액, 억엔)	1,550
- 일본의 대형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이 아르셀로미탈과 손잡고 미국 내 티센크루프의 자동차강판 공장을 인수('13.11월) - 신일철주금과 아르셀로미탈이 독일 티센크루프사로부터 미국 알라바마주에 위치한 자동차강판 공장을 2,000억 엔(2조 900억 원)에 인수 - 이번 인수는 신일철주금 사상 최대 해외인수로 대금은 두 회사가 절반씩 부담 - 신일철주금은 북미지역의 강판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체제를 확립할 방침 - 신일철주금은 아르셀로미탈과 함께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철강공장을 가동해왔지만 최근 북미에서 일본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용 고급 철강재 공급과 수요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 - 현재 인디애나 공장 조강량은 연 200만 톤이며 앨라배마 공장(연 240만 톤)과 합치면 연간 조강량은 420만 톤까지 확대 - 이번 인수로 북미지역에서 자동차 생산을 늘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체에 안정적으로 철강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 - 이번 인수로 신일철주금은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됨 - 동사는 올 8월 멕시코, 10월 태국 등에서 자동차강판 공장을 신규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내년 1월에는 인도 공장을 준공 - 중국에서도 오는 2015년 가동을 목표로 바오스틸그룹과 합작공장을 확장하기로 합의			
□ 인수기업 개요 <신일철주금> - 설립 : 1970.3월 - 매출액('13년) : 267,460억 엔 - 종업원수 : 24,510명 - 주요사업 : 제철 엔지니어링, 화학, 신소재 시스템 솔루션의 각 사업 <아르셀로미탈> - 설립 : 2006년 - 매출액('12년) : 5,089억 엔 - 종업원수 : 320,000명 - 주요사업 : 철강 생산 □ 피인수기업 개요 - 설립 : 1999.3월 - 매출액('13년) : 7,051억 엔 - 종업원수 : 156,856명 - 주요사업 : 자동차용 강판 생산			

인수기업	미쓰비시자동차	피인수기업	포드(필리핀)
분야	자동차	규모(금액, 억엔)	150
◦ 일본 미쓰비시자동차가 포드 필리핀 공장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 14.3월) - 미쓰비시는 포드가 2012년 철수한 필리핀 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완성차 조립공장을 인수하고 나서 설비를 재활용할 예정 - 공장 인수가 100억 ~150억 엔(약 1,036억~1,555억 원)으로 포드 초기 투자비용의 절반에 불과 ◦ 미쓰비시는 이미 필리핀에 3만대 생산 규모 공장을 갖추고 있으나 설비 노후화에 따라 새 공장 신설을 추진해왔음 - 필리핀 자동차시장 규모는 18만대에 불과하지만 미쓰비시는 경제발전 추세에 따라 자동차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현재 필리핀에서 토요타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미쓰비시와 현대자동차가 그 뒤를 추격 - 한편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주요 6국 자동차시장은 지난 2012년의 320만대에서 오는 2025년 약 500만대로 확대될 전망 - 현재 일본 업체가 아세안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독일 폭스바겐과 한국 현대 등 외국 업체가 공세를 펼치고 있음			
□ 인수기업 개요 ◦ 설립 : 1970.4월 ◦ 매출액(' 12년) : 18,151억 엔 ◦ 종업원수 : 29,822명 ◦ 주요사업 : 자동차 생산, 판매 □ 피인수기업 개요 ◦ 설립 : 1903.7월 ◦ 매출액('13년) : 136,491억 엔 ◦ 종업원수 : 165,000명 ◦ 주요사업 : 자동차 제조 및 판매			

3. 2012년 이후 주요 해외기업 M&A 리스트

(단위: 억 엔)

연도	일본기업	피인수기업	분야	금액
2012	소프트뱅크	스프린트 넥스텔(미국)	통신·방송	18,000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스 & 리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스미토모상사	RBS애비에이션캐피털 (영국)	기타 금융	5,531
	덴쓰	이지스그룹 (영국)	서비스	3,955
	마루베니	가빌론 (미국)	종합상사	2,858
	도요타통상	CFAO (프랑스)	종합상사	2,527
	아사히카세이	줄 메디컬 (미국)	화학	1,804
	이토추상사	돌푸드 (미국)	종합상사	1,330
	다이킨공업	굿맨 (미국)	전기·기계	2,960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퍼시픽캐피털뱅크 (미국)	은행	1,200
	글로리	탈라리스 톱코 (영국)	정밀	858
2013	도쿄일렉트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미국)	합병 (지주회사)	9,202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아유다은행 (태국)	은행	6,760
	LIXIL그룹	그로헤 (독일)	매수	3,816
	유니온 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P B 캐피탈(독일)	사업양도	3,563
	오릭스	로베코 (네덜란드)	금융	2,420
	산토리 식품 인터내셔널	그락소스미스클라인 (영국)	사업양도	2,106
	토쿄 부동산	토쿄 커뮤니티, 토쿄 리버블	합병 (지주회사) 주식 양도	2,046
	미쓰비시상사 기업연금연합회 국제협력은행 미즈호은행 등	Midland Cogeneration Venture (스웨덴)	종합상사	2,000
	신일철주금 아르셀로미탈	티센크루프(독일)	철강	1,550
	소프트뱅크 경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슈퍼셀(핀란드)	통신·방송	1,547
	소프트뱅크	브라이트스타(미국)	통신·방송	1,094
	손해보험재팬	캐노피우스	보험	1,002
	오스카	아스텍스제약회사(미국)	의약품	882
2014	산토리홀딩스	빔 (미국)	주류	16,500

자료원 : RECOF 및 일강공업신문('13.11.27)

1. 자원확보형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 에너지자원 확보 차원 투자 중심

- 일본에서는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이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대체원료로서 LNG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각국의 자원 확보 움직임으로 실질적인 석유 탐사·개발 기회는 줄어들고 있어 자원 확보는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의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에너지 자급률은 4.4%(2010)로 일본에 있어서 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래의 3가지 지역 자원에 기대감 증폭
 - ① 자연 환경의 어려움이나 인프라의 미정비로 인해 탐광이 행해지지 않았던 지역(동시베리아, 북극권, 동아프리카 등)
 - ② 기술 혁신으로 인해 개발이 가능해진 자원(대표적인 예로 셰일 오일(Shale oil), 해저지역 등)
 - ③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개발이 가능해진 지역(이라크, 리비아, 일부 아프리카 제국 등) 등
- 최근 자원확보형 해외투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주요 상사들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호주, 미얀마 등의 국가에 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이 집중되어 있음.
- 에너지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의 광물자원에 있어서도 차세대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나 항공기, 전기전자산업, 재생가능에너지, 철강, 화학 산업계의 관심이 높음. 연료자원과 마찬가지로 가격형성을 유리하게 진척시키기 위해서 메이저 상사를 중심으로 M&A를 추진하는 움직임

- 일본정부는 ODA나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민간기업과 해외기업/기관과의 공동개발을 추진
 - 일본외무성(‘13.6)에서 발표한 일본 ODA의 주요 목표로 신흥 시장개척을 위해 ODA 활용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음.
 - 특히, 자원 산출국에 관해서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 적절한 자원에너지산출지역개발 기본계획책정, 관련법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해 투자환경정비에도 도움이 되는 지원을 실행
 - 인재육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한다고 명시함
- * 제5회 아프리카개발회의(‘13년 6월)에서 아베 총리는 5년간 1000명의 아프리카 학생을 일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아베 (ABE; African Business Education) 이니셔티브를 선언

《 일본 총리-모잠비크대통령 공동회담 발표(‘14.1.12) 》

- * 아베 총리는 공동회담에서 도로건설을 ODA로 700억 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최신 화력발전소 건설에 172억 엔의 엔 차관 제공계획을 발표
- * 일본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모잠비크에서 광산개발, 자원의 정련가공(精鍊加工),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등 자원사업과 관련된 인재를 향후 5년에 걸쳐 300명 이상을 육성하는 것도 제안함

자료원: 닛케이신문(14.1.12)

- 국제 조달에 있어서도 제3국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 중부전력과 한국 KOGAS의 LNG공동조달(2013.1월)의 공동조달 사례를 비롯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조달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해외기업과의 공동조달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 주요 진출 사례

① **Mitsui Bussan(종합상사)의 호주 철광 개발 진출**

- 미츠이물산은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4위의 매출규모의 대기업임
- 동사는 Shin Nitetsu Sumikin(주)와 세계 최대 자원회사 중의 하나인 Rio Tinto와 공동으로 호주의 철광산(미개발지)을 개발 및 생산하기로 합의
- 총 투자액 약 578억 엔 중 동사는 약 191억 엔을 부담함.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철광석의 안정적 공급, 조달이 목적이며 2015년 1월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2014.2.13 발표)

② **Sumitomo Shoji(종합상사)의 미국 천연가스 조달**

- 일본의 5대 종합상사인 동사는 도쿄가스(주)와 공동으로 미국에서 공동사업회사를 설립
- 미국에서 조달할 LNG 약 230만 톤 중 약 80만 톤을 원전 가동 정지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일본 관서전력으로 수출할 예정
- 세계최대의 천연가스생산국인 미국에서 조달함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원가 절감을 실현할 계획임.(2014.2.12 발표)

③ **Mitsubishi Shoji(종합상사)의 미얀마 석유개발 참가**

-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최고 매출 규모
- 동사는 이미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함. 이미 미얀마에 진출한 Nippon Oil Myanmar에 자본을 투자하여 채굴된 석유/천연가스의 확보를 추진할 계획임. (2013.12.17 발표)

④ **Itochu Company(종합상사)의 캐나다 금속자원 개발**

-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두 번째 매출규모의 기업

- 동사는 캐나다의 Kaizen Discovery사와 금속자원의 탐광·개발사업에 대한 포괄적 제휴계약을 체결
- Kaizen Discovery사의 주식 약 6.35%(5,100만 캐나다달러)를 취득하였고, 주로 베이스메탈, 레어메탈을 타깃으로 탐광□개발할 예정(2014.2.3발표)

⑤ **Itochu Co.(종합상사)의 러시아 석유자원 개발 참가**

- 동사는 일본정부기관과 러시아의 중견석유회사인 INK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석유□가스 탐광(探鉱)회사 INK Zapad사에 자본참여하면서 12.6%의 주식을 보유, 주목 받는 동시베리아 지구의 석유·가스 조달 권리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됨.(2013.9.24 발표)

⑥ **Itochu Co.(종합상사)의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참가**

- 동사와 일본기업이 공동으로 극동러시아가스사업조사회사(Japan Far East Gas)를 설립함.
- Japan Far East Gas사와 러시아국영가스회사(프론가스)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MOU를 작년에 체결
- 천연가스의 채굴, 수송이 실현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변국에 LNG의 안정공급이 가능하게 됨.(2013.6.24 발표자료)

⑦ **Itochu Co.(종합상사)의 미국 LP가스 개발 참가**

- 동사는 미국 LP가스 수출기지 건설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에너지 트레이딩 컴퍼니인 Vitol Group과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함.
- 총사업비는 5억 달러로 동사는 34% 출자할 예정임. 2014년 말까지 수출기지를 완공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으로 수출할 예정임.

- 일본은 LP가스의 약 9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 천연가스와 LP가스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에서 조달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의 수입이 기대되고 있음. (2013.2.27 발표)

⑧ **Sojitz Corp.**(종합상사)의 브라질 농작물 회사 출자

- 동사는 종합상사 중 제 7위의 매출 규모의 대기업임
- 동사는 브라질의 농작물口곡물수집회사 2개사에 출자하여 브라질 산 곡물(콩, 옥수수 등)을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일본 및 다른 아시아국가에 수출할 계획임.
- 이미 베트남에서는 곡물사업을 시작하고 있어 동남아와 브라질간 조달망을 구축하므로 일본 및 아시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 (2013.10.22 발표)

⑨ **Marubeni Corp.**(종합상사)의 인도네시아 석유 개발참가

-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제 3위의 매출액 규모
- 동사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천연가스 조달을 위한 MOU를 인도네시아 국유 석유천연가스광업공사와 체결함. 동사는 인도네시아를 중점전략지역으로 평가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해 나갈 계획임. (2014.2.20 발표)

⑩ 미국 경제제재로 인한 **Inpex Corp.**의 이란철수(*실패사례)

- Inpex Corp.는 일본정부가 대주주인 석유자원 개발회사
- 동사는 2010년 이란의 유전개발에서 철수함. 2004년에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70% 이상의 이익을 보장 받고 있었으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한 영향을 받음.
- 경제제재 내용 중의 하나인 금융기관 거래중지 및 축소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청으로 더 이상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철수를 결정(2010.10.16 日經신문)

3. 2012년 이후 자원확보형 해외직접투자 사례

①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의 모잠비크 탄광 채굴권 획득

- 동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철강대기업임.
- 동사는 철강원료탄 생산을 위해 포스코와 공동으로 모잠비크에서의 탄광개발을 추진. 2013년 4월 3일부로 모잠비크 정부로부터 채굴권을 취득함. 2019년에 연간 500만 톤의 Full생산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2013.4.4 日經신문)

② **Mitsui Bussan(종합상사)**의 멕시코 발전사업 참여

- 멕시코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Eoliatec del Pacífico, S.A.P.I. de C.V.의 주식을 50% 취득함. 현재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는 2014년 4월부터 가동예정이며 생산된 전력은 15년간 민간 기업에게 공급될 예정임. 발전용량은 160MW이며 총사업비는 약 380억 엔.(2013.12.24 발표)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백서2013’, 일본경제신문, 각사 URL(보도자료) 등 종합

1. 생산거점 이전 최근 동향

□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해외이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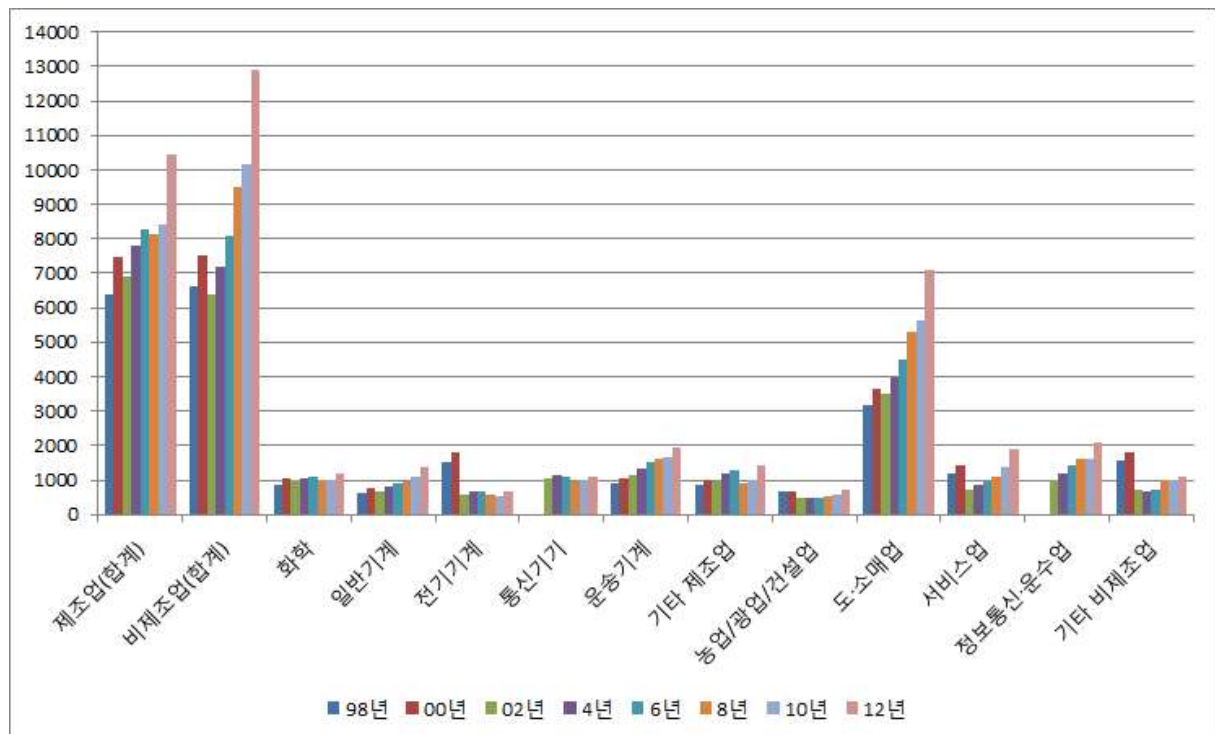
- 일본 경제산업성의 “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법인 설립수가 증가
-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해외법인 설립 증가가 뚜렷한 가운데, 2007년 이후 제조업과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일반 및 수송기계의 해외현지법인수가 증가하는 한편, 화학, 통신기기, 전기기기 등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고, 비제조업의 경우, 도매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일본기업의 해외생산 및 설비투자 비율을 보면, 리먼사태 이후에도 별다른 영향 없이 현지시장 확대가 지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엔고가 크게 진행된 10년 이후, 해외설비투자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지의 생산기반시설인 수송기계와 화학, 일반기계의 현지 생산 및 설비투자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엔저 이후에도 해외이전 증가 추세

- 아베정권 출범 이후 아베노믹스로 최근까지 지속되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해외로의 생산거점 이전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생산단가 저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 현지시장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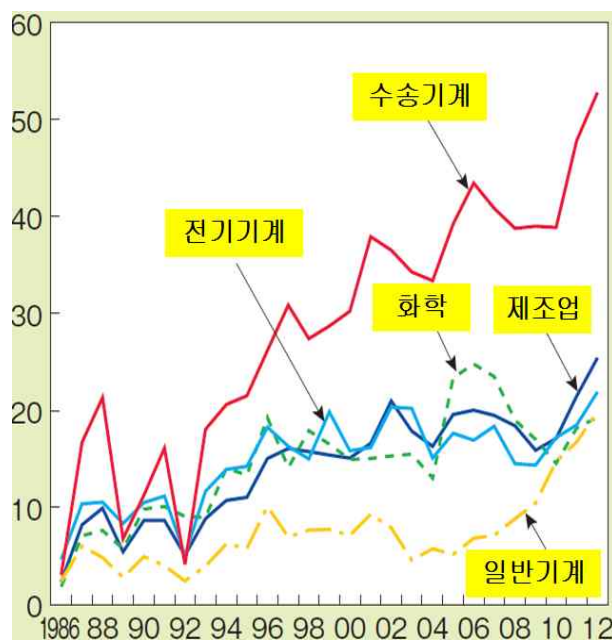
《 일본기업의 해외현지법인수 추이 》

(단위 :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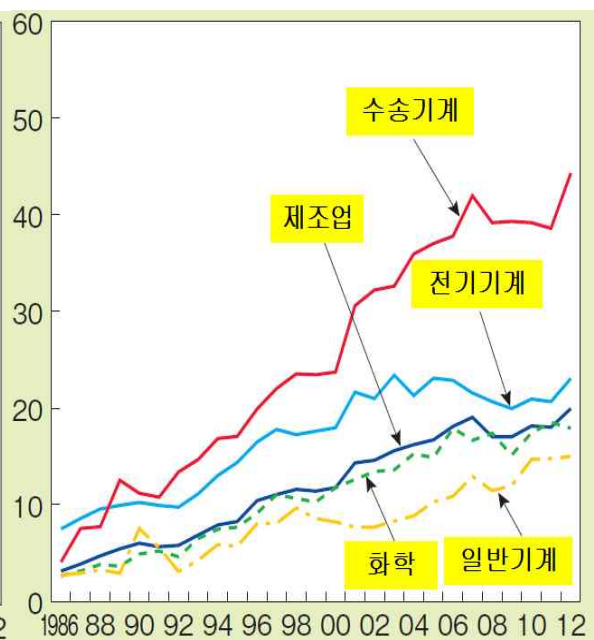


자료원 : 경제산업성, 통산백서 2012

《 해외생산비율(%) 》



《 해외설비투자비율(%) 》



자료원 : 경제산업성, 통산백서 2012

2. 주요 진출 사례

기업명	품목	내용	비고
TOTO	위생기기	▶ 위생기기 제조상 노동집약적 요소 활용과 시장규모에 따른 제조거점 확대	중국 (4개소)
야스카와전기	로봇, 제어장치	▶ 중국 산업고도화에 따른 로봇 및 제어장치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거점 설립	중국 (2개소)
일본텅스텐	텅스텐 제품	▶ 자원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생산거점 설립 ▶ 중국 시장성장에 따른 제품수요 확대 중	중국 (4개소)
우베코산기계	기계제조	▶ 성형기계 수요확대에 대응한 중국, 인도 생산거점 설립 ▶ 주요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기계 제작	중국/인도 (1개소)
서부기연	열교환기, 필터소재	▶ VOCs제거 핵심필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공조기기 및 플랜트 제조 ▶ 유럽시장을 겨냥해 스웨덴에 연구거점 설립	중국/미국 (1개소)
세이코덴키	전력 기자재	▶ 고저압배선전반, PLC제어반, 기계장치 등 현지생산에 필요한 전력기자재 제조거점 ▶ 전력관련 대기업 진출과 동반한 해외진출	중국/필리핀 (1개소)
토가미덴키	전력 기자재	▶ 배전선 고압개폐기 등 전력기자재 및 측정기기 생산거점으로서 대기업 진출과 동반한 해외진출	중국 (1개소)
닛코스미킹 일렉트론 디바이스	세라믹 제품	▶ 이미 진출한 전자관련 일본기업을 영업 대상으로 IC용 세라믹패키지, 반도체용 기반 제조	중국(1개소), 말련(2개소)
미쯔이 하이테크	리드 프레임	▶ 반도체 및 액정, 전자부품 관련 현지진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IC 리드프레임, 모터 코어 등을 제조	중국(3개소), 대만/태국/말련(1개소)
제팬동하우스	건축자재	▶ 신개념 주택(에너지절약형)을 응용한 다양한 건축소재 제조를 목적, 한국에 제조거점 설립 ▶ 비교적 높은 시공단가와 제조비용으로 제조거점 기능 취약해짐	한국 (실패)

자료원 : 동양경제 해외진출 기업 출람(2013년)

3. 2012년 이후 생산거점 이전 사례

기업명	품목	내용	비고
토다공업	양극 활성물	▶ 리튬이온전지의 양극활성물 제조관련 한국의 양산체제를 활용한 시장선점 ▶ 중국은 국내자원을 활용한 연구시설과 내수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에 주안	한국/중국 (1개소)
야스나가 기어텍	기어제조	▶ 한국의 수출용 자동차에 탑재되는 기어 및 관련제품의 생산거점	한국 (1개소)

자료원 :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자료

V

시사점

1. 일본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일본기업들이 겪는 국내 경영상 한계요인이나 어려움 등은 단기간 개선되기 힘들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추세는 유지될 전망
 - 대표적인 한계요인은 노동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 노령화
 - 노동가능인구도 1997년 6월 6,811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 4월에는 6,555만 명까지 감소
 - 인구 노령화가 계속 심화되며 2013년 10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 25.1% 기록(전년 동기 대비 약 111만 명 증가)
 -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전년대비 157천 명 감소한 16,360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12.9%에 불과
 - 일본기업들이 겪어오던 소위 ‘6중고’는 엔고 하나를 빼고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고 단기간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곤란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서플라이체인 붕괴를 경험했던 일본기업들은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유사 사태에 대비하여 리스크 분산 고려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가동 중단되고 천연가스, 석유 등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여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 지속
- ASEAN 등 신흥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저렴한 생산비용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구사
 - 신흥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Volume Zone) 공략 강화
 - 특히 아시아 소재 일본계 제조업체들은 역내 조달 및 판매를 확대하는 등 현지화 경향이 뚜렷함
 - 이외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은 천연자원 확보 목적도 포함

□ 엔저에 따른 수익력 회복으로 공격적 M&A 추진

- 일본기업은 인구 감소 전망과 고령화로 축소되고 있는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엔저에 따른 수익력 회복을 바탕으로 M&A를 추진
- 현지생산 [현지판매를 통해 마케팅 효율을 제고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른 신흥국 진출도 일본기업이 계속 해외로 진출하는 원인
- 아울러 일본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신규 분야 진출’, ‘전문 인재와 기술 획득’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M&A 추진

2. 우리의 대응책

□ 일본 기업에의 부품 공급 및 파트너십 강화 필요

-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소재부품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부품소재 공급은 물론 일본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제3국 공동 진출 등도 검토 필요
- 일본기업들의 투자진출 지역과 진출분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품공급은 물론 파트너십

□ 제3국 에너지 자원분야 투자협력 모색

- 양국은 에너지 등 주요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외투자에 있어 위험분산과 자금동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투자하는 방안 추진 필요
- 에너지개발 분야 투자뿐만 아니라 에너지 개발을 위한 각종 건설·플랜트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적극 발굴 필요

□ 해외진출 수요를 대한 투자유치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

- 일본기업의 제조기지 해외이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를 추진할 필요
-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연합 등 9건의 FTA를 통해 47개국과 FTA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등 3개국과 협상이 타결되었고 중국과도 FTA 협상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필요

□ 일본의 해외 M&A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벤치마킹

- 『엔고 종합 대응책』 중 엔고 활용차원에서 해외 M&A 지원(‘11.10.21)
- 국제협력은행(JBIC) 등 금융기관의 융자, 출자 등을 통한 지원
 - JBIC의 융자규모 10조 엔으로 확대(외환자금특별회계에서 약 2조엔 추가)
 - 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로의 출자를 확충해 해외자원 확보 지원
 - 산업혁신기구의 정부보험 규모를 1.8조 엔으로 확충

◆ JBIC 융자 실적 (‘11.10.21~‘12.10.20) : 총 10건, 약 3,400억 엔 이용

- 해외 M&A 지원실적은 총 2건, 약 14억 달러
- (도시바) 스위스 스마트미터기 제조업체 Landis+Gyr사 인수(‘12.2.23일)
 - JBIC 융자금액 6.8억 달러 + 도시바 출자금액 10.2억 달러
 - 스마트커뮤니티⁴⁾사업매출 현재 3000억엔에서 ‘15년 약 9000억엔 확대 기대
- (소니) 에릭슨의 소니에릭슨 보유지분 50% 인수해 완전 자회사화(‘12.2.23)
 - 총인수금액 10.5억 유로 중 JBIC 6.2억 유로(약 660억 엔) 융자
 - 소니에릭슨의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중심의 사업구조를 구축

4) Smart Community : ‘스마트 그리드’ 개념을 발전시켜 전력뿐만 아니라 전체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체계 등을 융합한 차세대 사회시스템

1. 일본의 지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 일본의 지역/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시아	16,188	17,167	19,388	23,348	20,636	22,131	39,492	33,477	40,470
중국	6,575	6,169	6,218	6,496	6,899	7,252	12,649	13,479	9,104
Asia NIES	4,902	3,893	6,039	5,842	5,907	6,902	9,302	8,043	8,955
홍콩	1,782	1,509	1,131	1,301	1,610	2,085	1,509	2,362	1,785
대만	828	491	1,373	1,082	339	-113	862	119	330
한국	1,736	1,517	1,302	2,369	1,077	1,085	2,439	3,996	3,296
싱가포르	557	375	2,233	1,089	2,881	3,845	4,492	1,566	3,545
ASEAN4	4,276	6,038	5,007	4,043	3,540	4,310	13,204	6,397	16,587
태국	2,125	1,984	2,608	2,016	1,632	2,248	7,133	547	10,174
인도네시아	1,185	744	1,030	731	483	490	3,611	3,810	3,907
말레이시아	524	2,941	325	591	616	1,058	1,441	1,308	1,265
필리핀	442	369	1,045	705	809	514	1,019	731	1,242
베트남	153	467	475	1,098	563	748	1,859	2,570	3,266
인도	266	512	1,506	5,551	3,664	2,864	2,326	2,802	2,155
북미	13,168	10,188	17,385	46,046	10,889	9,016	15,166	35,768	46,505
미국	12,126	9,297	15,672	44,674	10,660	9,193	14,730	31,974	43,703
캐나다	1,042	892	1,713	1,372	229	-177	436	3,796	2,800
중남미	6,402	2,547	9,482	29,623	17,393	5,346	11,287	10,454	10,197
멕시코	629	-2,603	501	315	211	688	264	1,023	1,750
브라질	953	1,423	1,244	5,371	3,753	4,316	8,290	4,113	4,037
케이만군도	3,915	2,814	5,838	22,550	12,903	-1,848	223	2,276	437
대양주	943	723	4,204	6,060	7,629	6,407	8,767	11,075	6,098
오스트레일리아	640	466	4,140	5,232	7,136	6,371	8,149	10,890	5,835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뉴질랜드	62	125	-22	635	237	-61	149	127	122
유 럽	8,230	18,396	20,965	23,068	17,830	15,043	39,841	31,017	32,227
독일	270	1,128	880	3,905	2,089	-321	2,165	1,797	2,653
영국	2,903	7,271	3,026	6,744	2,126	4,624	14,125	11,882	13,319
프랑스	541	842	479	1,703	1,161	551	116	2,291	-237
네덜란드	3,315	8,497	12,440	6,514	6,698	3,288	5,346	8,638	8,636
이탈리아	44	51	45	177	110	372	1,007	141	419
벨기에	-195	133	796	2,196	423	-166	-168	495	2,681
룩셈부르크	25	-478	2,291	527	3,279	-108	330	-73	921
스위스	56	183	61	165	221	143	2,336	1,509	-68
스웨덴	82	416	254	570	160	-623	-95	2,217	-307
스페인	363	136	10	210	162	38	124	-4	174
러시아	95	160	99	306	391	350	339	757	447
중 동	542	242	958	1,138	575	-348	716	447	91
사우디	494	254	746	892	378	117	104	41	27
U.A.E.	19	-56	60	194	139	-498	207	364	-269
아프리카	25	899	1,101	1,518	-301	-372	464	116	-537
남아프리카공화국	-17	466	82	648	143	104	459	370	195
합 계	45,461	50,165	73,483	130,801	74,650	57,223	108,808	122,355	135,049

<참고>

EU	5,002	6,923	7,790	6,309	7,002	8,930	19,645	10,675	30,999
ASEAN	7,872	17,925	19,934	22,939	17,039	8,359	36,052	29,023	23,619

자료원 : 일본 무역진흥회

《일본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조업	26,146	34,513	39,515	45,268	32,934	17,803	57,952	49,250	42,473
식품	1,685	1,025	12,776	3,601	8,954	2,017	8,149	2,364	3,528
섬유	416	180	371	716	477	377	672	927	486
목재·펄프	826	420	745	734	1,207	1,068	1,268	1,166	512
화학·의약	3,363	4,413	3,744	11,647	7,407	7,902	19,618	6,494	5,763
석유	531	2,921	-280	652	-51	-837	216	491	810
고무·가죽	831	1,107	835	771	445	634	715	1,853	3,206
유리·세라믹	258	2,759	837	1,417	2,042	377	1,325	1,922	2,080
철강·비철	1,331	1,795	2,202	3,152	3,738	3,873	5,017	4,206	2,881
일반기계	1,296	1,663	2,642	3,726	4,411	4,385	5,655	7,979	3,880
전기기계	4,377	7,041	4,691	5,675	2,505	1,361	7,334	6,707	4,622
운송장비	8,611	8,597	8,671	10,924	566	-3,582	4,132	10,465	11,697
정밀기계	1,419	1,420	1,293	953	609	51	2,791	3,219	1,612
비제조업	19,315	15,652	33,968	85,533	41,717	39,420	57,780	73,102	92,577
농·임업	23	42	93	59	10	145	250	101	124
어업	-44	28	64	119	36	47	-7	40	8
광업	1,372	1,577	4,053	10,518	6,482	9,061	16,477	20,934	13,089
건설	148	-64	490	389	499	302	436	870	593
운송	824	1,507	2,133	2,283	2,894	2,294	1,606	870	1,532
통신	1,712	-3,368	-331	1,675	3,870	9,899	-1,799	7,208	23,416
도소매업	4,623	5,483	4,792	13,319	8,418	1,946	12,407	18,372	13,923
금융보험업	9,227	5,562	19,458	52,243	15,463	11,397	19,111	14,210	26,701
부동산업	-851	-811	162	162	463	765	2,447	2,469	3,118
서비스업	1,086	188	1,406	2,721	2,163	1,596	4,022	4,350	7,480
합계	45,461	50,165	73,483	130,801	74,650	57,223	108,808	122,355	135,049

자료원 : 일본 무역진흥회

2. 해외현지법인의 제3국 수출 현황

《 2012년 해외현지법인의 제3국 수출 》

(단위: 백만 엔)

구 분	전체	지역별			
		북미	아시아	유럽	기타 지역
제조업 전체	29,074,296	9,508,745	10,547,025	6,378,234	2,640,292
식료품	464,784	58,996	97,893	233,330	74,565
섬유	268,968	43,781	106,300	93,979	24,908
목재, 펄프	221,918	35,468	108,209	66,290	11,951
화학	2,190,574	285,648	939,736	738,268	226,922
석유·석탄	1,158,887	7,631	1,048,778	22,633	79,845
요업·토석	670,491	143,278	135,180	290,257	101,776
철강	174,147	24,185	103,768	13,772	32,422
비철금속	340,977	13,105	215,291	73,887	38,694
금속제품	188,354	32,581	76,509	46,149	33,115
범용기계	587,977	124,978	146,418	245,923	70,658
생산용기계	693,301	60,357	198,142	155,524	279,278
업무용기계	850,157	164,007	451,310	212,897	21,943
전기기계	1,200,565	129,371	653,345	237,154	180,695
정보통신기계	2,437,143	141,657	1,768,578	405,195	121,713
수송기계	15,808,342	7,881,616	4,165,871	2,580,775	1,180,080
기타 제조업	1,817,711	362,086	331,697	962,201	161,727

자료원 : 경제산업성 '해외사업 활동기본조사(속보)'

《 2011년 해외현지법인의 제3국 수출액 》

(단위: 백만 엔)

구 분	전 체	지 역 별			
		북미	아시아	유럽	기타 지역
제 조 업 전 체	23,049,910	7,097,814	7,794,155	5,682,571	2,475,370
식료품	432,104	61,210	93,333	207,382	70,179
섬유	234,557	39,112	93,939	78,630	22,876
목재, 펄프	200,120	29,278	100,024	52,072	18,746
화학	2,053,106	263,120	897,319	669,161	223,506
석유口석탄	481,098	24,055	394,686	11,432	50,925
요업口토석	422,838	84,107	72,812	201,265	64,654
철강	158,227	12,440	88,510	30,855	26,422
비철금속	406,927	16,799	333,047	35,034	22,047
금속제품	107,292	9,629	46,549	23,896	27,218
범용기계	542,246	100,456	140,144	239,497	62,149
생산용기계	615,382	40,901	215,640	175,968	182,873
업무용기계	681,931	120,640	356,276	179,491	25,524
전기기계	1,050,955	80,035	567,682	213,159	190,079
정보통신기계	2,605,346	173,152	1,655,157	634,827	142,210
수송기계	11,901,179	5,794,709	2,485,679	2,447,562	1,173,229
기타 제조업	1,156,602	248,171	253,358	482,340	172,733

자료원 : 경제산업성 ‘해외사업 활동기본조사(속보)’



작성자

◆ 도쿄무역관	박은희 과장
◆ 나고야무역관	홍승민 차장
◆ 오사카무역관	김경미 차장
◆ 후쿠오카무역관	송혜주 차장
◆ 선진시장팀	김광수 차장



Global Market Report 14-017

일본기업의 최근 해외 투자진출 동향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4년 6월 10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